

## 공주 공산성 拱北樓 題詠詩一考\*

李 東 宰\*\*

< 目 次 >

- |                 |                |
|-----------------|----------------|
| I. 緒論           | IV. 공북루 題詠詩 세계 |
| II. 공산성 공북루 概觀  | V. 結論          |
| III. 공북루 제영시 현황 |                |

< 국문 초록 >

본고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의 문화적 위상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공산성에 있는 공북루 제영시의 현황과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공북루의 문화사적 가치를 찾고 문화관광에 활용하는데 기여하였다.

공주 공산성은 금강을 끼고 있는 승경의 공간으로 백제시대에는 왕궁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관찰사의 감무가 있었던 곳으로 공북루 외에도 여러 누정이 있다. 공북루는 1603년 충청도 관찰사 柳根이 공산성 안에 충청도의 감무를 조성하면서 북쪽 금강 변에 세운 누각으로 關防의 기능 이외에 遊息과 餞別의 공간이었다.

공산성 공북루 제영시는 1603년 柳根이 공북루를 낙성하고 지은 이후 20세기 초까지 꾸준히 지어졌으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원문정보서비스에 탑재된 DB에 88題 94수가 색인된다. 공북루 제영시의 형식은 5언절구 2제 2수, 5언율시 12제 13수, 7언절구 20제 23수, 7언율시 54제 56수 등으로, 7언율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초의 공북루 제영시인 유근의 시가 7언

\* 공주대학교 연구년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교수 / leedj@kongju.ac.kr

을시였고, 이 시를 후대의 문인들이 많이 次韻하여 지었기 때문이다.

공산성 공북루 제영시의 내용은 공북루의 승경을 읊은 시가 24수이고, 여로의 회포를 드러낸 시가 36수이며, 遊息의 정서가 드러난 시가 26수, 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는 남인계열의 문인들에 의해 이괄의 난을 소재로 한 시로 8수가 있다. 이는 공북루가 백제의 궁성이자, 고려와 조선시대 행궁인 공산성의 城樓로서 금강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승경의 공간이고,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사절들의 휴식 및 접대 장소였으며, 시인묵객들이 머물며 여로의 고단함을 토로할 수 있는 津樓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公山城 拱北樓 題詠詩 柳根 關防 遊息 餞別

## I. 緒論

본고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에 산재해 있는 누정에서 지어진 한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곳에서 지어진 한시의 내용적 특징, 나아가 문학사적 의의를 평가하여 공산성의 문화적 위상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공북루의 제영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는 역사적으로는 백제의 도읍지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충청도관찰사의 치소가 있었던 행정의 중심지였다. 또한 계룡산과 금강 등 천연의 승경공간을 가진 곳으로 금강루를 비롯한 수많은 누정이 있는 지역이다. 그 가운데 공산성은 공북루 외에도 만하루, 쌍수정, 임류각 등 여러 누정이 있는 승경의 공간이다. 공북루는 1603년 충청도 관찰사 柳根이 공산성 안에 충청도의 감무를 조성하면서 북쪽 금강변의 성벽 위에 세운 누각으로 關防의 기능 이외에 遊息과 送迎의 餞別의 공간이었다.

공산성 공북루 제영시는 1603년 柳根이 공산성의 북쪽 금강가에 공북루를 낙성하고, 이를 짓는데 공헌한 기술자들에게 위로연을 베풀면서 지은 <拱北樓成 招工匠咸集于庭 饋之以酒 酒闌爭起舞 是日適有雨>시가 최초이다.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충청도관찰사 등 관원이나 유람객들이 공북루에 올

라 유근의 시에 차운하거나 다른 운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시를 지었다.

현재 공북루에는 최초의 공북루 시인 유근의 시 외에 5개의 시판이 걸려 있고, 충남역사박물관에는 충청도관찰사 조득림이 1851년 가을에 공주의 유생들과 공북루에서 가을 경치를 감상하며 지은 시를 두루마리 형태인 「北樓淸秋」가 있으며, 한국문집총간에는 86제 94수가 색인이 되는 등 많은 시가 지어졌다.

역사가 길고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건물의 위용이 뛰어난 누정일수록 시로 새긴 현판이 많은 것이 보통이다. 통시적이라는 것은 생존 시기를 달리하는 인물들이 편액을 거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 누정의 건립자를 추모하거나 주변 경관을 완상하며, 그 감정을 시에 담아 초시대적인 공감을 피하므로 누정시를 통하여 전대 인물들의 통시적·공시적·교유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sup>1)</sup> 그러므로 공북루 제영시는 공북루를 매개로 한 당대의 인물들의 교유관계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각 정파의 유대관계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사적 자료가 된다.

누정과 누정문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되어 누정의 현황 조사, 누정문학 작품의 수집·정리,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sup>2)</sup> 그러나 공산성에 있는 여러 누정과 제영시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누정에 대한 소개<sup>3)</sup>에 그치고 이곳에서 지어진 한시의 현황과 분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공주 공산성 공북루의 연혁을 알아보고, 이어 이곳에서 지어진 제영시의 현황을 개관해 보며, 이어 공북루 제영시 가운데 문학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인의 시를 중심으로, 첫째, 승경의 稱歎, 둘째, 遊樂

1) 조용호, 「장흥의 樓亭과 樓亭詩의 사회, 문화적 맥락」, 『지방사와 지방문학』 제14집, 역사문화학회, 2011, p.509 참조.

2) 이에 대한 논의는 강정화의 「지리산권 하동지역의 樓亭攷」가 자세하며, 많은 참고가 된다 (강정화, 「지리산권 하동지역의 樓亭攷」, 『남도문화연구』 제21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1, pp.7-8. 참조). 이에 본고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3) 허경진, 『충남지역 누정문학 연구』, 2000, 태학사.

의 興懷, 셋째, 旅路의 회포, 넷째, 역사의 회고로 나누어 살펴보아서 공부루가 갖는 문화사적 의의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삼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II. 공산성 拱北樓 概觀

공주의 公山城은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금성동·옥룡동에 걸쳐 있는 백제시대 석축 성곽으로 금강을 북쪽으로 끼고 있어서 경관이 매우 수려하고, 보존상태가 우수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 유산이다.

공주 공산성이 있는 공산은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로 이루어져서 마치 한자인 '公'자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公字山이라고도 불린다. 공산의 동쪽에 있는 산봉은 해발 110m이고, 서쪽의 산봉은 해발 85m이다. 공산성은 이 두 개의 산봉우리를 따라서 축조되어 자연스럽게 두 산봉 사이의 계곡부분을 에워싸는 포곡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공산성은 공주시가지 쪽에 해당되는 남쪽은 높고, 금강 쪽에 해당되는 북쪽은 낮아 南高北低의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성벽의 둘레 2,660m 중 1,930m는 석성이고, 730m는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다.<sup>4)</sup>

공산성(사적 제12호)은 백제시대에는 웅진성, 고려시대에는 공주산성, 조선시대에는 공산성이라고 불리었으며, 인조가 이괄의 난(1624)을 피해 산성에 머문 이후 쌍수산성으로도 불렸다.

1602년 柳根이 충청도관찰사로 부임 한 후 공산성을 수리하고 1603년부터 1604년까지는 그 안에 충청도 감영을 두었으나, 성안이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제민천변으로 이전하였으며, 1646년 4월 관찰사 林潭이 柳灌의 난을 평정하면서 감영에 방어시설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다시 공산성 안으로 감영을 옮겼다. 그러나 성안의 감영이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이 어려워져 많은 불평이 나오자, 1653년 다시 제민천변 옛 감영으로 이전하

4) 국립공주박물관, 『공산성』, 국립공주박물관, 2013, pp.8-18 참조.

였으나, 홍수로 자주 침수되자 1707년 봉황산 아래로 이전하였다가 1932년 대전으로 도청을 옮길 때까지 200여 년간 존속되었다.<sup>5)</sup> 그러므로 공산성은 충청 감영의 기간은 10여년 남짓이고 주로 공주를 지키는 산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었다.

현재 공산성에 남아있는 누정은 공북루 외에도 공산성의 남쪽 관문인 진남루, 서쪽 관문인 금서루, 동남쪽의 영동루, 영은사 북쪽 금강변의 만하루, 쌍수정, 광복루, 공산정 등의 누정이 있다.

공북루는 공산성의 북쪽의 금강변 석성 위에 세워진 누각이다. 공북루는 1602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한 柳根이 충청도의 치소를 청주에서 공주로 옮기고, 공산성 안에 감영을 설치하기 위해 절차를 계문하여, 공주목사를 겸임하라는 비답이 내려지자 산성을 修築한 후에 옛 금강루[망북루]의 자리에 세운 것이다.

아래의 <그림 1>은 1872년에 그린 공주목지도 가운데 공산성 부분의 지도이고, <그림 2>는 공산성의 오늘날 항공사진이다.



<그림 1> 공주목지도의 공산성 부분도



<그림 2> 현재의 공산성 사진

<그림 1>의 지도에서 보듯이, 공북루는 공산성의 북쪽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의 진남루와 연결된 길의 城樓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금강을 남북으로 건너는 금강진의 관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通門이었다.

5)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감영』, 국립공주박물관, 2016, p.15 참조.

공산성의 북문루인 공북루가 있었던 곳에는 원래 錦江樓가 있었다. 금강루는 여말선초의 인물인 정도전이 유배지인 나주 회진에서 放免되어 개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주 금강루에 올라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題公州錦江樓>를 지은 시가 최초의 기록이고, 이후 서거정 등 여러 문인들의 시가 남아 있으며, 1530년(중종 25)에 增補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망북루가 언급되어 있고, 최후의 기록은 1602년 趙翊이 지은 <二十二日 商山樵提督丈春亭 次鄭三峯錦江樓韻遠寄. 其意有在 感歎之餘 和送二章>을 지은 것으로 보아 공북루의 자리에는 원래 금강루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申混이 공주목사로 부임한 형 申濡를 방문하여 공북루에 올라 지은 시에서도 공북루를 '망경루'라고 한 것은 공북루를 달리 부른 것이다.<sup>6)</sup>

공북루가 지어진 지 60년 후인 1662년 吳挺緯가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중수를 하였고,<sup>7)</sup> 1765년 관찰사 尹東昇이 중수를 하였으며, 1903년(고종 40)에 洪承憲이 관찰사로 부임하여 중수를 하고 기문을 남겼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에도 한 차례 중수를 하였고, 1964년 국고 보조비로 보수를 하였으며, 1976년 1월 8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37호에 지정되었다.<sup>8)</sup>

拱北은 『論語』의 “덕으로써 다스림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되 못 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sup>9)</sup>에서 유래한다. 즉 여러 별들이 北極星을 향하는 것처럼 사방의 백성들이 천자의 德化에 귀의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拱北이라는 명칭을 가진 누각은 성곽의 북쪽에 있는 문루로 공주 공산성의 공북루 이외에도 청주성의 북문, 고창의 모양성 북문, 전주성의 북문

6) 申混 『初菴集』, 한국문집총간(속) 37, p.17, <奉和伯氏拱北樓> 其二, 羈旅偏多病, 窮途已覺秋, 難樵賦詩, 獨倚望京樓, 當泣悲歌激, 關心逝水流, 濁醪豪氣盡, 聊爲試深愁.

7)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13, p.13, 「公州拱北樓重修記」, 今上 壬寅 吳公挺緯按節來洩, 適值荐飢賑恤之餘, 拾其奇零, 以新其樓, 蓋不忍其舊之全廢, 而又將爲之兆也. 其言曰, 昔吾外王父西峒柳公嘗建斯樓, 攷其歲則 萬曆壬寅也. 今甲子一周, 而不肖來按, 既不得無情, 而又況 仁祖大王一嘗臨幸, 昔周人以召公來布文王之德, 而猶不拜甘棠之樹, 況如斯樓者, 其又可圯壞耶.

8) 국립공주박물관, 『공산성』, 국립공주박물관, 2013, pp.8-18 참조.

9) 『論語』, 「爲政」,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

등이 있다. 현재 공북루는 공산성과 고창의 모양성에 남아있지만, 공산성 공북루가 공간적 위치가 금강 변 승경의 공간에 있고, 크기가 모양성의 공북루보다 크고 웅장하여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는 현재의 공북루의 모습과 시액으로 걸려 있는 현판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 3> 공북루 모습



<그림 4> 공북루 현판시

<그림 3>에서 보듯이, 공북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홑처마의 팔작지붕이다. 높은 기둥을 사용한 2층의 누각 건축으로 위층에는 누마루를 깔았고, 아래층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공산성의 북쪽 關防뿐만 아니라 금강을 배로 통할 수 있는 門樓이자 遊息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공간임을 보여준다.

현재 공북루에는 현판시가 5개 걸려있다. <그림 4>는 유근이 지은 최초의 공북루 시인 <拱北樓成 招工匠咸集于庭 饋之以酒 酒闌爭起舞 是日適有雨>이다. 이밖에 宋相琦(1657~1723)의 <拱北樓 次板上韻>시, 李益輔가 1751년 공북루를 중수한 후 관하의 수령들과 백일장을 베풀면서 두보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와 그 자리에 참석 한 청주목사 李秀得, 옥천군수 鄭光震, 부여현감 宋載和, 울릉찰방 鄭述祚 등이 지은 시를 새긴 현판이 걸려 있다. 그리고 안찰사 이현영이 1894년 가을에 지은 시, 1920년 金閔煥이 지은 시가 걸려있다.

이처럼 1603년 관찰사 유근에 의해 세워진 공북루는 공산성의 누각으

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북루는 공산성의 북쪽의 관방을 담당하는 城樓이자 금강진의 津樓, 여기에 관청에 딸린 公廡로서 경치가 뛰어난 승경의 공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휴식과 조망, 회고, 전별 등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다.

### Ⅲ. 공북루 제영시 현황

유근은 1602년 충청도관찰사로 다시 부임하여 청주에 있던 치소를 공주에 옮기고 감무를 공산성에 조성하면서 공북루를 함께 조성하여 1603년 가을에 낙성하였다. 공북루 제영시는 유근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연회를 베풀면서 지은 <拱北樓成 招工匠咸集于庭 饋之以酒 酒闌爭起舞 是日適有雨><sup>10)</sup>시를 지은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여러 문인들에 의해 많은 시가 지어졌다.<sup>11)</sup>

본고는 공주 공산성 공북루의 제영시를 한국고전번역원 원문정보서비스에 탑재된 『한국문집총간』에서 시의 제목에 ‘拱北樓’, ‘北樓’가 들어간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원문정보서비스에 탑재된 『한국문집총간』에서 시의 제목에 ‘拱北樓’, ‘北樓’가 들어간 시가 98題 105수이며, 그 가운데 공주 공산성 공북루와 관련이 없는 시 10題 11수를 제외하면,<sup>12)</sup> 공주 공북루 제영시는 88題 94수가 된다.

10) 柳根 『西塘詩集』, 한국문집총간 57, 한국고전번역원, p.456, <拱北樓成 招工匠咸集于庭 饋之以酒 酒闌爭起舞 是日適有雨>, 高棟新開城上頭, 金湯萬古衛神州. 蘇仙赤壁今蒼壁, 庾亮南樓是北樓. 人在湖山應自得, 天教江漢擅風流. 片雲忽送催詩雨, 相我清樽九日遊.

11) 한 예로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의 전시실에는 충청도관찰사 조득립이 1851년 가을에 충청도 유생들과 공북루에서 가을 경치를 감상하며 유근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 32수를 모은 두루마리 형태인 「北樓清秋」가 있다.

12) 앞의 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拱北樓는 공주의 공산성을 비롯하여 청주와 전주, 고창 등지에 있었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원문 DB에서 한국문집총간 시의 제목에서 ‘拱北樓’로 검색되는 시 가운데, 李齊賢의 <拱北樓應製詩>, 白文寶의 <伏次拱北樓應製詩韻>, 辛葦의 <拱北樓>, 田祿生の <拱北樓>, 李夏坤의 <拱北樓前逢雪> 시는 시제에 ‘在清州’라고 小註를 붙여 놓은 것으로 보아 청주의 공북루에서 지은 시이며, 韓章錫의 <拱北樓敬

아래의 <표>는 한국고전번역원의 DB에서 시의 제목에 <拱北樓>, 또는 <北樓>로 검색된 시 가운데 공주 공북루 제영시를 뽑아 작시의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연번	작자명	제 목	작시연도	형식	비고
1	柳根	拱北樓成 招工匠咸集于庭 饋之以酒 酒闌爭起舞 是日適有雨	1603	7언율시	
2	李慶全	拱北樓	1608	7언율시	
3	許積	次拱北樓韻	1608	7언절구	
4	許積	題公州城樓	1608	7언율시	
5	許積	晚登拱北樓 次前韻呈呂使君	1608	7언율시	
6	李春元	題拱北樓	1617	7언율시	
7	李命俊	拱北樓次韻	1623	7언절구	
8	李命俊	次拱北樓韻	1623	7언율시	
9	吳翻	拱北樓 次巡相李九畹韻	1626	7언율시	
10	李敏求	拱北樓	1627	7언율시	
11	申濡	次魚僑伯都事拱北樓見寄	1647	7언절구	
12	申濡	拱北樓讌集 次都事韻	1647	5언율시	
13	申濡	拱北樓	1647	5언율시	2수
14	申濡	伏日北樓韻 和都事	1647	5언율시	
15	申濡	拱北樓下 泛舟	1647	7언율시	
16	申濡	拱北樓	1647	7언절구	公山十詠 중 1수
17	申混	奉和伯氏拱北樓	1647	5언율시	
18	金弘郁	拱北樓 次板上韻	1650	7언절구	
19	金弘郁	題拱北樓	1650	7언율시	
20	俞槩	暮登拱北樓 別金使相由善	1650	5언절구	
21	姜栢年	登拱北樓	1653	5언율시	
22	姜栢年	端午日 登拱北樓	1653	5언절구	

次季曾祖翼貞公板上韻>은 청주 읍성의 북문인 공북루를 소재로 한 시이고, 周世鵬의 <題拱北樓> 시는 경상도 문화의 북문루에서 지은 시이며, 申錫愚의 <登拱北樓賦喜雨> 시는 경상도 달성의 북문루에서 지은 시이다. 그리고 趙秉鉉의 <次拱北樓舟遊韻> 시 2수는 공주 공북루와 크게 관련이 없고, 李建昌의 <九日 感去年拱北樓題詩事 復用其韻> 1수는 공북루에서 시를 지었던 일을 떠올리며 지은 시로서 공북루 제영시가 아니다.

연번	작자명	제 목	작성연도	형식	비고
23	姜栢年	月夜 與午谷李兄及李姪 登拱北樓	1653	5언율시	
24	姜栢年	與京試官李文學殷相 登拱北樓 … 乘醉玩景 率爾口號	1653	5언율시	
25	姜栢年	京試官李正言殷相 次拱北樓壁上韻 以示余求和 座上乘醉口號以步	1653	7언절구	
26	李景奭	拱北樓 自蒼巖乘舟而下	1654	7언율시	
27	李端相	七月既望 同權按使堦 登拱北樓	1656	7언율시	
28	李弘有	登公山拱北樓	1650	7언율시	
29	李弘有	與族孫監司慶億 上拱北樓	1650	7언절구	
30	李弘有	公山拱北樓 復用前韻	1650	7언절구	
31	李敏敘	拱北樓次壁上韻 奉呈仲氏竹西	1668	7언율시	
32	李沃	拱北樓 公州	1668	7언율시	
33	沈攸	李都事賦拱北樓詩求和 卽席次韻	1670	7언율시	
34	趙遠期	錦江拱北樓 謹次軒翁韻	1672	7언절구	
35	趙遠期	拱北樓 謹次南坡韻	1672	7언절구	
36	宋奎濂	拱北樓 次西桐柳公韻	1680	7언율시	
37	蔡彭胤	拱北樓 留別湖西伯朴令公紳	1692	7언율시	
38	蔡彭胤	登拱北樓謝巡相三疊見和 輒復四疊五疊却寄	1692	7언율시	
39	蔡彭胤	巡相離營 自拱北樓乘月泛江 舟中呼韻同賦	1692	7언절구	2수
40	蔡彭胤	同二猶子自拱北樓下 併舟至熊津別 還寓却寄	1692	7언율시	
41	蔡彭胤	北樓雨中 重用舟中韻贈別	1692	7언절구	
42	蔡彭胤	北樓赴會席上 記權奉示巡相令公 時聞玉候平復	1692	7언율시	
43	蔡彭胤	北樓別席 重用前韻演成七言 別舊巡使	1692	7언율시	3수
44	洪受疇	拱北樓 次西桐柳公韻	1696	7언율시	
45	任守幹	上拱北樓	1697	7언율시	
46	宋相琦	拱北樓 次板上韻	1699	7언율시	
47	沈箴	拱北樓 用板上韻	1709	7언율시	
48	沈箴	歸路 至公州 設樂于拱北樓 抵夜方還	1709	7언절구	
49	任適	登拱北樓有感	1710	7언율시	
50	李匡德	拱北樓 伏次先人壁上約	1713	7언절구	2수
51	姜再恒	拱北樓 樓在雙樹山城	1714	7언율시	
52	沈尙鼎	拱北樓 用板上韻	1716	7언율시	
53	洪世泰	拱北樓	1717	5언율시	
54	權斗經	拱北樓次柳西桐韻	1721	7언율시	
55	李眞望	和申弟弼夏 敬次拱北樓先什之作	1721	7언절구	2수

연번	작자명	제 목	작성연도	형식	비고
56	曹夏望	拱北樓	1723	7언율시	
57	李箕鍊	以奉安使南下 登拱北樓 次農巖集過公州韻 示內翰金稚明時粲	1725	5언율시	
58	尹鳳五	元月十七日 爲觀省往道州 歷登山之拱北樓	1726	7언율시	
59	鄭來僑	拱北樓	1726	7언율시	
60	金鎭商	拱北樓 次板上韻	1736	7언율시	
61	金鎭商	拱北樓 次板上韻	1736	7언율시	
62	趙載浩	拱北樓感懷	1745	7언율시	
63	申光洙	拱北樓 次板上韻	1748	7언율시	2수
64	洪樂仁	拱北樓	1767	5언율시	
65	朴胤源	登拱北樓	1769	7언율시	
66	朴準源	登拱北樓	1769	7언절구	
67	朴準源	拱北樓觀漲	1769	7언율시	
68	柳得恭	熊州 拱北樓	1774	7언율시	
69	柳得恭	拱北樓	1774	7언절구	
70	柳得恭	拱北樓	1774	5언율시	
71	金載瓚	拱北樓 公州	1794	7언절구	
72	丁若鏞	登公州拱北樓	1795	7언율시	
73	成海應	望拱北樓	1801	7언율시	
74	宋煥箕	拱北樓 次仙源韻	1806	7언율시	
75	宋煥箕	山城月夜 泛舟前江 次西峒北樓韻	1806	7언율시	
76	宋來熙	拱北樓	1807	7언율시	
77	夏時贊	登拱北樓 九月未望	1809	7언율시	
78	夏時贊	再登拱北樓	1809	7언율시	
79	李載毅	拱北樓 敬次仙源先生韻	1813	7언율시	
80	李若烈	登公州拱北樓 次板上韻	1816	7언율시	2수
81	鄭奎漢	登拱北樓 次鳳凰臺韻	1817	7언율시	
82	趙秉鉉	誕辰日 登拱北樓	1833	7언절구	
83	閔胄顯	公州拱北樓 次板上韻		7언율시	
84	洪翰周	十月旣望 約鶴下朴友世卿顯圭 遊雙樹山城之拱北樓 次杜律共賦	1865	7언율시	
85	洪翰周	後數日 追成拱北樓第二韻 書示鶴下老友	1865	7언율시	
86	李建昌	重陽 登拱北樓	1877	7언율시	
87	李建昌	重登拱北樓	1877	7언절구	
88	金澤榮	公州拱北樓	1878	5언율시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북루 제영시는 공북루가 구축된 1603년에 최초로 지어진다. 1603년 충청도관찰사 柳根은 공북루를 짓고, 이를 짓는데 공헌한 기술자들에게 위로의 주연을 베풀면서 <拱北樓成 招工匠咸集于庭 饋之以酒 酒闌爭起舞 是日適有雨>시를 짓는다. 이때 文義현감인 洪鸞祥이 지은 시가 널리 회자되어 유몽인이 지은 『於于野談』에 소개되어 있다.<sup>13)</sup>

李慶全(1567~1644)은 1608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치소의 북쪽 누각인 공북루에 올라 유근의 시에 차운하여 <拱北樓>시 1수를 지었고, 許積은 1608년 충청도관찰사인 李慶全을 만나러 공주에 와서 공북루에 올라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次拱北樓韻> 시 2수와 <晚登拱北樓 次前韻呈呂使君> 시 1수를 지었다. 李春元(1571~1634)은 1617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공북루에 올라 <題拱北樓> 시 1수를 지었고,<sup>14)</sup> 李命俊(1572~1630)은 1624년 충청도관찰사로 재직하며, 공북루에 올라 시액으로 걸려있는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次韻> 시 1수, <次拱北樓韻> 1수 등 2수를 지었다.

吳翻(1592~1634)은 1624년 李适의 난 때 인조를 호종하여 공주에 왔었고, 이후 1626년 청주목사로 부임하여 충청도의 치소인 공주에 들렀을 때, 공북루에 올라 李慶全의 시인 <拱北樓>시를 차운하여 <拱北樓 次巡相李九畹韻> 시 1수를 지었고, 李敏求(1589~1670)는 1627년 충청도 임천군수로 부임하는 길에 공주를 지나며 공북루에 올라 <拱北樓> 시 1수를 지었다.

申濡(1610~1665)는 1647년부터 1649년까지 公州牧使로 재임하며 자주 공북루에 올라 <次魚伯都事拱北樓見寄> 2수와 <拱北樓讌集 次都事韻> 1수, <拱北樓> 2수, <伏日北樓韻 和都事> 1수 등 6수의 공북루 제영시를 지었다. 또한 申濡의 동생인 申混(1624~1656)은 1648년 형의 임지인 공주를 방문하여 함께 공북루에 올라 <奉和伯氏拱北樓> 시 2수를 지었다. 金弘郁

13) 柳夢寅, 『於于野談』, 柳根按節湖西時 與諸倅大宴於拱北樓 徹夜酣樂 醉興方濃 忽聞雞鳴聲 問曰 此何聲也 蓋嫌其夜已向曙也 有妓陽臺雲者 故對之曰 此乃江邊白鷺聲也 柳根其所對 迎合己意稱其敏慧 仍令座中賦詩 洪鸞祥文士也 時以文義倅 亦與焉 先占一絕曰 酒半高樓畫 燭明 錦城絲竹正轟轟 佳人恐敗風流興 笑道鷄聲是鷺聲 方伯覽而稱賞 一時膾炙湖西士人 以末句作爲題 多有賦之者云.

14) 시의 제목인 <拱北樓>의 夾註에 丁巳 觀察湖西라고 하여 작시의 시기를 밝히고 있다.

(1602~1654)은 1650년 洪忠道觀察使로 부임하여 유근의 시에 차운하여 <拱北樓 次板上韻> 시 1수와 <題拱北樓> 시 1수를 지었고, 俞榮(1607~1664)는 1650년 고향인 부여에서 함경도로귀양가던 길에 공주를 들러서 충청도관찰사인 金慶餘(1596~1653)와 함께 공북루에 올라 <暮登拱北樓 別金使相由善> 시 1수를 지었다.

姜栢年(1603~1681)은 1653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유근의 시에 화운한 <登拱北樓> 2수, <端午日 登拱北樓> 1수와 <月夜與午谷李兄及李姪 登拱北樓> 1수, <與京試官李文學 殷相 登拱北樓 遊賞半日. 仍令小妓輩乘舟歌舞而憑欄俯視 上下珠翠 照耀波心. 恍若水僊遊戲於貝宮 乘醉元景 率爾口號> 1수, <京試官李正言 殷相 次拱北樓壁上韻 以示余求和 座上乘醉口號以步> 1수 등 6수를 지었다. 李景奭(1595~1671)은 1654년 중시조인 덕친군의 묘에 참배하러 공주에 왔다가 <拱北樓 自蒼巖乘舟而下> 시 1수를 지었고,<sup>15)</sup> 李端相(1628~1669)은 1656년 7월 16일 충청도관찰사인 權堦(1610~1685)와 함께 공북루에 올라서 <七月既望 同權按使堦 登拱北樓> 1수를 지었다.<sup>16)</sup>

李弘有(1588~1671)는 1660년경에 공주에 와서 공북루에 올라 공북루에 시액으로 걸려있는 유근의 시에 차운하여 <登公山拱北樓> 시 1수와 <公山拱北樓 復用前韻> 1수, <與族孫監司慶億 上拱北樓> 1수 등 3수를 지었다.<sup>17)</sup> 李敏敍(1633~1688)는 1668년 羅州牧使로 나갔다가 중앙의 내직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 형인 李敏迪(1625~1673)이 충청도관찰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주를 지나며 공북루에 올라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次壁上韻 奉呈仲氏竹西> 1수를 지었다.

李沃(1641~1698)은 1668년 忠淸道 都事로 부임하여 공북루에 올라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 시 1수를 지었고,<sup>18)</sup> 沈攸(1620~1688)는 1670년

15) 李景奭 『白軒集』 권11, 「南征錄」의 夾註 '適解職堦 爲省亡妹費於求禮 仍展拜始祖廟於燕岐

16)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權堦는 1655년 6월 24일 충청도관찰사에 임명되어 1657년 3월까지 역임하였다.

17) 이홍유가 지은 <與族孫監司 慶億 上拱北樓>의 시계에 나오는 죽손 李慶億(1620~1673)은 1659년 가을부터 1661년까지 봄까지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했었고, 시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여름의 내용이 나오므로 1660년으로 추정된다.

9월에 전라도 경차관으로 내려가면서 공주를 지나며 공북루에 올라 柳根의 시에 차운하여 <李都事賦拱北樓詩求和 卽席次韻> 시 1수를 지었다.<sup>19)</sup> 趙遠期(1630~1680)는 1672년 윤7월 忠淸道 水災巡視御使로 공주에 와서 공북루에 올라 장인인 李景奭의 <拱北樓 自蒼巖乘舟而下> 시에 차운하여 <錦江拱北樓 謹次軒翁韻> 1수와 洪宇遠(1605~1687)의 시에 차운하여 <拱北樓 謹次南坡韻> 1수 등 2수를 지었으며, 宋奎濂(1630~1709)은 1686년 5월에 公洪道觀察使로 부임하여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 次西垆柳公韻> 1수를 지었다. 蔡彭胤(1669~1731)은 1692년 10월 배를 타고 백마강을 거슬러 올라 와서 고향인 정산(현 충남 청양군 정산면으로 공주시와 경계)으로 귀근하면서 공북루에 올라 <拱北樓 留別湖西伯朴令公 紳> 1수와 <登拱北樓謝巡相三疊見和 輒復四疊五疊却寄> 2수 <巡相離營 自拱北樓乘月泛江 舟中呼韻同賦> 2수, <同二猶子自拱北樓下 併舟至熊津別 還寓却寄> 1수, <北樓雨中 重用舟中韻贈別> 1수, <北樓赴會席上 記權奉示巡相令公 時間玉候平復> 1수, <北樓別席 重用前韻演成七言 別舊巡使> 3수 등 11수를 남겼다.<sup>20)</sup>

洪受疇(1641~1704)는 1696년 5월에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공주의 공북루에 올라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 次西垆柳公韻> 시 1수를 지었고,<sup>21)</sup> 任守幹(1665~1721)은 1697년 忠淸道 都事로 공주에 부임하여 와서 공북루에 올라 <上拱北樓> 1수를 지었으며, 宋相琦(1657~1723)는 1699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 次板上韻> 1수를 지었다.

沈鎔(1685~1753)은 1709년 봄 湖南 일대를 유람하는 길에 공주를 지나

18) 李沃은 1668년 忠淸道 都事로 부임하여 公務의 여가에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며 지은 시를 모아서 「湖西錄」이라고 명명하고, 詩題에 방문한 곳에 대한 설명이나 詩句의 배경에 대한 해설이 小註로 附記하고 있다

19) 沈攸는 1688년 3월부터 1669년 2월까지 충청도 관하의 옥천군수를 역임하여 도의 치소가 있는 공주에 공무상 왕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은 시의 내용[湖關匹馬重經路]으로 보아 1670년 전라도 경차관으로 부임하며 지은 시로 보인다.

20) 詩題의 夾註에 나오는 朴紳은 『왕조실록』에 의하면 1692년 6월에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21) 洪受疇가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지은 시문을 모은 「錦營錄」의 夾註에, “丙子五月 除拜湖西伯 同年臘月 以殿最事 備局 啓罷. 丁丑二月歸.”라고 기록되어 있다.

며 공북루에 올라 <拱北樓> 시 1수와 <歸路 至公州 設樂于拱北樓 抵夜方還> 시 2수 등 3수를 지었고, 任適(1685~172)은 1710년 가을 사마시에 합격하고 속리산을 유람하러 갈 때, 공주를 들러 공북루에 올라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登拱北樓有感> 1수를 지었다. 李匡德(1690~ 1748)은 1713년 여름 공북루에 올라 아버지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 伏次先人壁上韻> 시 2수를 지었으며, 姜再恒(1689~1756)은 1714년 스승인 明齋 尹拯(1629~1714)이 죽자, 조문하기 위해 노성(지금의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공북루에 올라 <拱北樓 樓在雙樹山城> 시 1수를 지었다. 沈尙鼎(1680~1721)은 1716년 10월 泗川 縣監에서 遞差되어 고향인 林川(지금의 충남 부여군 임천면)으로 귀향하는 길에 공주를 지나며 공북루에 올라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 用板上韻> 시 1수를 지었고, 洪世泰(1653~1725)는 1717년 忠淸右道을 유람하며 공주에 들러 공북루에 올라 <拱北樓> 시 1수를 지었으며, 權斗經(1654~1725)은 1721년 高山(지금의 전북 완주군 고산면) 察訪으로 부임하러 가던 길에 공주를 지나며 공북루에 올라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次柳西峒韻> 1수를 지었다. 李眞望은 李景奭의 증손으로 1714년 충청도 어사로 공주를 순행하였고, 시의 미주에 '不肖亦昔登茲樓 有敬和之章'이라고 붙여 있는 것을 보아 1721년 청주 목사로 충청도의 감무가 있는 공주에 와서 申弼夏의 시에 화운하여 <和申弟弼夏 敬次拱北樓先什之作> 시 1수를 지었다. 曹夏望(1682~1747)은 1723년 충청도 논산의 西峯[노성]과 전라도 咸悅 등지를 유람하러 갈 때 공주를 지나가며 공북루에 올라 <拱北樓> 시 1수를 지었고,<sup>22)</sup> 李箕鎭(1687~1755)은 1725년 11월에 전북 진안에 있는 적상산 史庫에 실록을 봉안하기 위해 갈 때, 공주를 지나며 공북루에 올라 <以奉安使南下 登拱北樓 次農巖集過公州韻 示內翰金稚明時粲> 시 1수를 지었다. 尹鳳五(1688~1769)는 1726년 1월 17일 道州

22) 曹夏望의 시문집인 『西州集』의 권3의 「南征錄」에 실린 <渡鐵工 先箭湖 時安使尹汝妣 惠教 俞兄>시를 통해 보면, 충청도관찰사 尹惠教는 1723년 5월에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는 1723년에 조하망이 충청도 논산과 전라도 일대를 유람하기 위해 공주를 지나가면서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의 경북 청도군)에 계신 부모님을 근친하러 가면서 공북루에 올라 <元月十七日 爲觀省往道州 歷登山之拱北樓> 시 1수를 지었고, 鄭來僑(1681~1757)는 1722년 辛壬獄事가 일어나자 가족을 이끌고 鷄籠山 浣巖谷으로 피신하여 살다가 1726년 금강 일대를 유람하며 공북루에 올라 <拱北樓> 1수를 지었다. 金鎭商(1684~1755)은 1736년에는 호남을 유람하러 갈 때, 공북루에 올라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 次板上韻> 1수를 짓고, 호남의 유람을 마치고 돌아올 때 공북루에 올라 다시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 次板上韻> 1수 등 2수를 지었다.<sup>23)</sup>

趙載浩(1702~1762)는 1745년 5월 公洪道觀察使로 공주에 부임하여 공북루에 올라 <拱北樓感懷> 1수를 지었고, 申光洙(1712~1775)는 1748년 湖西覆試를 보기 위해 공주에 와서 공북루에 올라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 次板上韻> 1수를 지었으며, 洪樂仁(1729~1777)은 1767년 6월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는 길에 공주의 공북루에 올라 <拱北樓> 시 1수를 지었다.

朴胤源(1734~1799)은 1769년 부친의 임소인 공주에 와서 동생인 朴準源과 함께 공북루에 올라와서 <登拱北樓> 시를 7언율시 1수와 7언절구 1수를 각각 지었으며, 朴準源(1739~1807)도 이때 <登拱北樓> 시 1수와 <拱北樓觀漲> 시 1수를 각각 지었다.<sup>24)</sup> 柳得恭(1748~1807)은 1774년 공주를 유람하며 7언율시인 <熊州 拱北樓> 시 1수와 5언율시인 <拱北樓> 시 1수 등 2수를 지었으며,<sup>25)</sup> 金載贊(1746~1827)은 그의 연보가 자세하지 않으나 정황상 1794년경에 공주에 와서 <拱北樓> 시 1수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丁若鏞(1762~1836)은 1795년 7월 주문모 사건에 연좌되어 충청도 금정찰방

23) 이 시의 詩題의 협주에, 時余得兒還鄉 故第五云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귀향길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4) 朴胤源 『近齋集』 권21, 한국문집총간 250, p.407, 「鎬江詩序」, 歲戍子 家大人通判是州. 明年余隨而至 乃可以登遊 而適病未能也. 一日吾弟平叔 自漢師至 請余爲北樓之遊 余病且已 遂携手而同登焉.

25) 그의 연보에 의하면 1774년 그의 나이 27세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부여와 공주 등을 유람하였으며 「熊州檉絲絕」 등을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공북루 관련 시도 이 때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으로 좌천되었을 때, 부여를 거쳐 공주를 유람하며 공북루에 올라 <登公州拱北樓> 시 1수를 지었으며, 成海應(1800~1834)은 1801년 金井察訪으로 부임하여 와서 관찰사의 치소가 있는 공주에 와서 공북루에 올라 <登拱北樓> 시 1수를 지었다. 宋煥箕(1728~1807)는 1806년 扶餘와 公州의 師友들과 공주에 있는 黃慎(1560~1617)의 사당인 滄江祠 등을 참배하는 길에 공북루에 올라 仙源 金尙容(1561~1637)이 지은 <公州山城> 시<sup>26)</sup>를 차운하여 <拱北樓次仙源韻> 시 1수와 <山城月夜 泛舟前江 次西峒北樓韻> 시 1수 등 2수를 지었다. 宋來熙(1791~1867)는 1807년 아버지 宋啓楨인 唐津 縣監으로 재직할 때, 회덕(지금의 대전광역시)의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임지인 당진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공북루에 올라 <拱北樓> 시 1수를 지었다. 夏時贊(1750~1828)은 1809년 9월 14일 鷄籠山을 유람하러 가던 길에 공북루에 오라 <登拱北樓> 시 1수를 지었고, 유람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다시 공북루에 올라 <再登拱北樓> 시 1수를 더 지었다. 李載毅(1772~1839)는 1813년 靈巖 郡守로 있는 장남 이종영을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북루에 올라 김상용의 <公州山城>시를 차운하여 <拱北樓 敬次仙源先生韻> 시 1수를 지었고, 李若烈(1765~1836)은 1816년 2월 全羅道 都事로 부임하기 위해 공주를 지나며 공북루에 올라 <登公州拱北樓 次板上韻> 시 2수를 지었다.

鄭奎漢(1751~1824)이 지은 <登拱北樓 次鳳凰臺韻>는 작가가 공주 계룡 출신으로 평생 공주에서 살았고, 문집의 편집도 시기 별로 구분하여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작시의 시기를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가 1817년 3월 세자의 입학례에 참여하고 지은 <丁丑三月十一日 世子入學時 行動舉止 言語處置 實是生知之聖人 聞之不覺手舞足蹈 慶忭感賦>시 다음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서울에 갔다가 집(공주시 계룡면 화산리)으로 귀가하며 공북루에 올라 지은 시로 보인다. 趙秉鉉(1791~1849)은 1833년 4월 公忠道(忠淸道) 觀察使로 부임하여 공주에 와서 공북루에 올라 <誕辰日 登拱北

26) 金尙容, 『仙源遺稿』, 한국문집총간 65, p.154, <公州山城>, 熊津督府古雄藩, 控扼東南節制尊. 山勢拱趨天北極, 江流通接海西門. 桑麻處處田園好, 煙火家家物色繁. 聖代卽今刀斗靜, 亂鴉殘喋自黃昏.

樓> 시 1수와 <次拱北樓舟遊韻> 1수 등 2수를 지었고, 閔胄顯(1808~1882)은 1841년 4월 高濟林, 朴源應과 공주 表忠院, 忠賢書院을 거쳐 鷄龍山 등지를 유람할 때 공북루에 올라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拱北樓 次板上韻>시 1수를 지었다. 洪翰周(1798~1868)는 1863년 7월 전라도 나주의 유배에서 풀려나 田里放逐되었을 때, 잠시 나주에서 머물다 서울로 돌아올 때 공주를 지나며 옥천군수로 있던 박헌규와 함께 공북루에 올라 <十月旣望 約鶴下朴友世卿 顯圭 遊雙樹山城之拱北樓 次杜律共賦> 시 1수와 <後數日 追成拱北樓 第二韻 書示鶴下老友> 1수를 지었다. 李建昌(1852~1898)은 1877년 가을 충청우도 암행어사로 공주를 암행할 때 공북루에 올라 <重陽 登拱北樓> 시 1수와 <重登拱北樓> 시 1수를 지었고, 金澤榮(1850~1927)은 1878년 공주에 와서 공북루에 올라 <公州拱北樓> 시 1수를 지었다.<sup>27)</sup>

누정 제영시는 누정에 걸려 있는 선대의 시를 차운하여 짓는 것이 특징이다. 공북루 제영시시는 유근의 시를 시판으로 걸어 놓았기 때문에 이후 공북루를 오르는 문인들은 유근의 시에 차운하여 작시를 하였다. 공북루 제영시 가운데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는 이경전의 <拱北樓>를 비롯하여 21명의 문인에 의해 24수가 있다. 또한 시의 형식별로 분류해 보면, 5언절구는 2제 2수에 불과하고, 5언율시는 13제 14수이며, 7언절구는 20제 23수이고, 7언율시는 52제 56수로 절반 이상이 7언율시이다. 이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최초의 공북루 제영시인 유근의 시가 7언율시로, 후대의 문인들이 이 시를 차운하여 지었기 때문이다.

#### IV. 공북루 題詠詩 세계

앞 장에서 전술하였듯이, 공북루는 승경의 공간인 금강 가에 있으면서도 패망한 백제의 도성이자 고려 顯宗과 조선의 仁祖가 駐蹕하였고, 충청

27) 김택영의 문집인 『蓄篋堂集』은 저작 연대 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公州拱北樓>시는 「戊寅稿」에 있으므로 무인년(1878년)에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도 관찰사의 관아가 있었던 공산성 안에 있으며, 호남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금강을 건너는 배를 타기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나루터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에 오르는 문인들은 승경의 감탄, 인생과 역사의 허무감, 때로는 여로의 회포를 드러냈는데, 여행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그 이미지가 중층적으로 드러난다.

누정 제영시는 누정 주변경관의 묘사와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심회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러므로 누정 제영시는 그 누정의 성격이 무엇인가가 시의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sup>28)</sup> 공주의 공북루 제영시는 88제 94수로 공북루의 공간적 특징을 반영한 승경을 읊은 시가 24수, 여로의 회포를 드러낸 시가 36수로 가장 많고, 여기에 더하여 관리들의 遊食의 즐거움을 드러낸 시 26수, 역사의 현장에서 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가 8수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문학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인의 시를 중심으로, 첫째, 승경의 칭탄, 둘째, 遊樂의 興懷, 셋째, 여로의 회포, 넷째, 역사의 회고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승경의 칭탄을 드러낸 시를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북루는 공산성의 북쪽 금강 변에 세워진 누정으로서 금강과 어울리는 승경의 공간이자 여러 나그네들의 휴식과 전별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유근은 공북루를 “소동과가 놀던 적벽은 지금의 창벽이요, 유량이 세운 남루는 바로 공북루로다.”<sup>29)</sup>라고 시화를 하였고, 謹齋 朴胤源은 “강의 남쪽 언덕에 공북루가 있는데, 청산에 둘러 쌓여 있고 멀리 들판과 통하여 매우 화려하면서도 앞이 확 트여 있다. 누대 위에 올라 강물을 굽어보면 안석에 앉아서 오고가는 배들과 물위에 떠 있는 갈매기 등을 모두 구경할 수 있다. 내가 일찍이 누대의 승경을 듣고서 한 번 올라가 보려고 하였으나 인연이 없었다.”<sup>30)</sup>라고 칭송하였다.

28) 조용호, 「장흥의 樓亭과 樓亭詩의 사회문화적 맥락」, 『지방사와 지방문학』 제14집, 역사문화학회, 2011, pp.509-510 참조.

29) 柳根, 『西桐詩集』, 한국문집총간 57, 한국고전번역원, p.456, <拱北樓成 招工匠咸集于庭饋之以酒 酒闌爭起舞 是日適有雨>, 蘇仙赤壁今蒼壁, 庾亮南樓是北樓.

공북루 제영시 가운데 공북루의 승경을 읊은 시는 24수이다. 그 가운데 공북루의 승경을 예찬한 시 몇 수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李慶全(1567~1644) 1608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공북루에 올라 현판으로 걸려있는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拱北樓>시이다.

西來形勝飽名州	호서 땅에 오니 승경 고을이란 말 질리도록 들었고
閱盡湖山更倚樓	강과 산을 다 구경하고 다시 이 누각에 오르네.
疏雨夕陽遙渚晚	가랑비는 저녁노을 아래 저 멀리 물가에 내리고
白雲紅樹亂峯秋	흰 구름은 단풍으로 물든 산봉우리에 걸려있네.
詩因自負還疑助	시는 자부하였으나 다시 이루어질까 주저하고
境遇難忘每欲留	의경은 잊기 어려워 매번 머물게 하네.
聽說東華近多事	듣자니, 도성엔 근래에 일이 많다하니
幾人談笑已封侯 <sup>31)</sup>	몇 사람이나 봉후를 얻었다고 담소를 나누었나?

시의 전반부는 공북루 승경에 대한 찬사와 작자가 직접 목도한 공북루의 경치이다. 작자는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자마자 충청도에는 경치가 좋은 곳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난 곳이 공북루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래서 작자는 가을날 가랑비가 내리는 저녁시간에 직접 공북루에 올라와 보았다. 공북루에서 바라본 금강은 가랑비 속에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고, 저 멀리 연미산에는 흰 구름이 단풍 든 산 위로 피어오르고 있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시의 후반부는 공북루의 승경을 몰입되어 시화하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이다. 작자는 석양이 물든 금강과 붉은 색 단풍과 백운이 조화를 이룬 연미산의 승경을 시로 표현하려고 주변이 어두워지도록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 “듣자니, 도성엔 근래에 일이 많다하니,

30) 朴準源 『近齋集』, 한국문집총간 250, 한국고전번역원, p.407, <錦江詩序>. 江之南崖 有拱北樓 環青山 通遠野 宏麗爽塏. 登其上 俯江流 如几案焉 舟楫之往來 鷗鷺之沉浮 皆可觀也. 余聞樓之勝 嘗欲一登而無因焉.

31) 李慶全, 『石樓遺稿』, 한국문집총간 73, 한국고전번역원, p.326, <拱北樓>.

몇 사람이나 봉후를 얻었다고 답소를 나누었나?"라고 하여, 지방관으로 내려와 한가롭게 공부루의 승경을 감상하는 것은 서울에서 더 높은 관직을 얻기 위해 宵衣旰食하며 노력하는 일과 견줄 수 없는 人間快事라고 하여 공부루의 승경을 칭탄하고 있다.

이처럼 공부루의 승경을 칭탄하는 시는 다음의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李弘有(1588~1671)가 1660년 죽순인 충청도관찰사 李慶億(1620~1673)을 따라 공부루에 올라 공부루에 걸려있는 유근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登公山拱北樓> 시이다.

生平願得見熊州	평생의 소원인 응주를 구경하는 것
此日登樓始聘眸	이날 누대에 올라 비로소 눈으로 보았네.
檻外青山基一局	난간 너머의 청산은 바둑판처럼 보이고
簷前湖水月千秋	처마 앞의 호수는 달빛이 천년 동안 비쳤네.
景多幾引騷人屐	풍경이 뛰어나 수많은 문인들의 발길을 끌어 들이고
地勝長留過客舟	승경지라 길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배를 머물게 하네.
徙倚曲欄心拱北	굽은 난간으로 옮겨 기대니 마음은 북극을 맴돌고
瑤京指點彩雲頭 <sup>32)</sup>	오색구름 위의 요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네.

시의 전반부는 작자가 평소 말로만 들었던 공주의 승경지인 공부루를 찾아와서 직접 본 감회이다. 작자는 평소의 소원대로 공부루에 올라와 서본 경치는 공부루의 북쪽 난간 너머로는 저 멀리 푸른 산들이 첩첩히 포개져 있고, 처마 아래 금강엔 달빛이 넘실거리는 환상적인 모습이였다.

시의 후반부는 작자가 공부루에서 경험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다. 작자는 공부루가 승경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승경지를 떠나는 아쉬움이 남아서 배를 타고 금강을 건너가면서도 공부루를 뒤돌아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하여 작자 자신도 공부루의 승경에 도취되어 한밤중이 다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밤하늘에

32) 李弘有, 『遜軒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속) 23, 한국고전번역원, p.53, <登公山拱北樓>.

보이는 북극성을 찾으며 자신이 있는 곳이 선경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공북루의 승경에 빠져 그의 다른 시에서 “올라와 오래도록 앉아서 다시 내려갈 것을 잊고, 현란한 달빛이 처마를 뚫어 그림자가 창문에 스미네.”<sup>33)</sup>라고 읊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북루를 승경의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조선 후기 문인인 夏時贊(1750~1828)이 1809년 9월 14일 鷄籠山을 유람하러 가던 길에 공북루에 올라서 지은 <登拱北樓> 시이다.

雙樹城樓屹半天	쌍수성의 성루가 반공에 솟아있고
坐來清颯若登仙	올라앉으니 맑은 바람이 불어 마치 신선이 된 듯
滿山黃葉開新畫	은 산의 단풍잎은 새로운 그림으로 펼쳐지고
隔水蒼葭劈晚烟	강 너머 푸른 갈대는 저녁 안개로 잘라놓은 듯
浩蕩風光秋序後	가을이 지난 뒤라 풍광은 호탕해지고
喧騰歌管夕陽邊	석양이 넘어간 뒤라 노랫소리는 시끌벅적
憑欄面皆詩料	난간에 기대니 사방이 모두 시의 소재가 되건만
其奈疎才不盡傳 <sup>34)</sup>	어찌 하려 성근 재주로 다 전할 수 없음을

이 시는 앞에서 살펴본 시들이 공북루에 현판으로 걸려 있는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와 달리 새로운 운으로 작시하였다. 시의 수련은 가을날 공북루의 위용이다. 공북루는 공산성의 성루인데 하늘 높이 솟아 있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그곳에 오르면 마치 신선이 된 기분이 든다고 하여 공북루의 위용을 설명하고 있다. 시의 함련은 공북루 위에서 바라다 본 주변의 승경이다. 공북루 위에서 동남쪽을 바라보면 공산성 성안이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고, 북쪽으로 금강을 내려다보면 가을 저녁 안개에 갈대들이 일렬로 잘라 놓은 듯이 보인다.

시의 경련은 공북루의 정경이다. 공북루에는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는데

33) 李弘有, 『遜軒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속) 23, 한국고전번역원, p.53, <與族孫監司 慶億 上 拱北樓>. 登臨坐久還忘下, 枉月窺簷影透窓.

34) 夏時贊, 『悅菴文集』, 한국문집총간(속) 102, 한국고전번역원, p.206, <登拱北樓>.

도 이곳을 찾은 유람객들이 떠날 줄 모르고 있다. 시의 미련은 공북루의 승경을 시화하려고 애쓰는 작자의 모습이다. 작자는 공북루의 난간에 기대어 눈앞에서 펼쳐진 승경을 시화하고자 하나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전전공공하고 있다. 그래서 작자는 공북루의 승경에 아쉬움이 남아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공북루에 올라 겨울날의 공북루 승경을 시화하기도 하였다.<sup>35)</sup>

둘째, 遊樂의 興懷를 드러낸 시를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북루는 공산성의 북쪽 관방의 관문이자 충청도의 감무의 公廨였으며, 금강진의 津樓의 기능을 가진 누정이었다. 그러므로 이 누정에서는 관리들의 遊息과 接賓이 이루어졌고, 일반인들은 금강을 건너는 사람을 맞이하고 보내는 餞別의 공간이었다. 그리하여 공북루에서는 수시로 酒筵이 베풀어졌다. 이와 같은 정황은 柳夢寅의 於于野談에, “충청도 관찰사인 柳根이 관하의 수령들을 초치하여 주연을 베풀자 文義현감인 洪鸞祥이 취흥이 도도해진 높은 누각엔 촛불이 밝고, 금성 안에는 풍악이 낭자하구나. 미인은 풍류의 흥취 망가질까봐,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백로 울음이라 농으로 말하네,”라고 한 기록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36)</sup>

이처럼 공북루에서 주연을 베풀며 遊息과 遊樂의 흥회를 드러낸 시는 유근의 시 외에도 25수가 더 있다. 본 절에서는 그 가운데 몇 수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金弘郁(1602~1654)이 1650년 洪忠道觀察使로 부임하여 공북루에 올라 지은 <題拱北樓> 시이다.

三面高峯勢截然	삼면에 높은 봉우리는 깎아놓은 듯
營門開處地形偏	영문은 비탈진 지형에 따라 지어 놓았네.
樓橫絕壁層巖上	누각은 절벽 높은 바위 위에 가로 놓여있고

35) 夏時贊, 『悅菴文集』, 한국문집총간(숙) 102, 한국고전번역원, p.208, <再登拱北樓>, 前度遊人此又來, 冬容幽絕勝秋回. 枝枝樹雪梅花嫩, 面面江水寶鑑開. 官渡歸舟真活畫, 夕陽詩思小塵埃. 一聲長笛來何自, 徙倚南樓興未裁.

36) 柳夢寅, 『於于野談』, 柳根按節湖西時 與諸倅大宴於拱北樓 徹夜酣樂 醉興方濃 忽聞雞鳴聲. 問曰 此何聲也. 蓋嫌其夜已向曙也. 有妓陽臺雲者 故對之曰 此乃江邊白鷺聲也. 柳根其所對 迎合己意稱其敏慧 仍令座中賦詩. 洪鸞祥文士也 時以文義倅 亦與焉. 先占一絕曰 酒半高樓畫燭明, 錦城絲竹正轟轟. 佳人恐敗風流興, 笑道鷄聲是鷺聲.

簾捲青山白水邊	밭을 걷어 올리니 청산이 맑은 물가에 있네.
日暖雲生當檻石	날이 따뜻해지자 안개가 피어 닳돌을 가리고
月明人語渡江船	달이 밝자 사람들은 왁자지껄 강배로 건너네.
時平正值煙花節	시절은 태평하고 바로 봄철인데
樽酒何妨醉管絃 <sup>37)</sup>	어찌 통술로 음악에 취하는 것에 방해가 되리

시의 수련은 공산성과 성안 마을의 모습이다. 앞에서 전술했듯이 공산성은 '公'자의 모양의 산릉을 따라 쌓은 성으로, 동쪽의 높은 산릉이 남쪽으로 돌아 서쪽으로 이어지고 북쪽으로 와서 낮아져서 북쪽 면에는 석축을 하여 성을 쌓고 성의 출입문이 세웠는데, 이곳이 바로 공북루이다. 또한 성안에는 유근이 감무를 설치하느라 지은 영문들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군영과 군량을 보관하는 창고, 나무를 통제하는 津吏들의 공무를 보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시의 함련은 공북루의 모습이다. 공북루는 금강 가 절벽 사이에 있어서 밭을 걷어 올리고 보니 해 저녁이라 공산정 아래 푸른 절벽[陰巖]이 물속에 드리워져 있고, 금강에 안개가 끼어 나무에 배를 묶어두는 닳줄도 보이지 않다가 얼마 후 달이 밝아오자 배를 타기 위해 왁자지껄 시끄럽다. 시의 미련은 酒興을 즐기는 작자 자신의 모습이다. 작자는 서울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충청도 관찰사로 내려와 한가롭게 통술을 마시며 봄날의 유흥을 즐기고 있다.

이처럼 공북루에서 이루어지는 유흥을 興懷를 드러낸 시는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李端相(1628~1669)이 1656년 7월 16일 충청도관찰사인 權構(1610~1685)와 함께 공북루에 올라와서 지은 <七月旣望 同權按使構 登拱北樓> 2수 가운데 첫 수이다.

孤城迢遞接雲平	고성은 하늘 높이 구름과 맞닿아 평평해 보이고
白日輾門畫戟橫	대낮에 군문의 병장기들은 비껴 놓여있네.

37) 金弘郁, 『鶴洲先生全集』, 한국문집총간 102, 한국고전번역원, p.68, <題拱北樓>.

威鎮湖山人得意	위세는 강산을 누르나 사람들은 만족해하고
令嚴鐘鼓夜無聲	군령은 종고를 엄하게 하나 밤인데도 소리가 없네.
樽前十隊絃歌妓	술동이 앞엔 열 줄로 늘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기생들
帳下千群組練兵	장막 아래엔 천여 명의 훈련된 병사들
緩帶輕裘談笑裏	중무장을 풀고 가볍게 담소하는 속에
時從遊客引深航 <sup>38)</sup>	때때로 유흥객의 큰 술잔을 끌어당기네.

시의 전반부는 작자가 공주에 와서 본 공산성의 정경이다. 공산성은 금강가에 위치한 천연의 요해지이고, 시절이 태평하여 성안을 지키는 군인들도 병장기를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시의 후반부는 공북루에서 이루어진 흥겨운 주연의 장면이다. 충청도 관찰사 권우는 자신을 찾아 온 작자를 위해 7월 망간에 공북루에서 주연을 베풀어 주었다. 공북루 위엔 여러 명의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관찰사는 술에 취해 손님으로 참석한 작자의 술잔을 끌어다 마시고 있으며, 누대 아래엔 군인들이 무장을 풀고 연회를 구경하고 있다. 그래서 작자는 공북루에서 이루어진 유흥의 즐거움을 두 번째 시의 尾聯에서 “타향에서 이 같은 연회는 진실로 꿈만 같은데, 서울로 돌아가 즐거웠던 유람을 사랑하리라.”<sup>39)</sup>라고 하며 유흥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遊樂의 興懷를 드러낸 시는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는 姜栢年(1603~1681)이 1653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여 현판으로 걸려 있는 유근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月夜 與午谷李兄及李姪 登拱北樓> 시이다.

偷閑邀遠客	바쁜 틈을 타서 원유객을 맞이하여
乘興上高樓	흥을 타고 높다란 누각에 오르네.
白月盈船載	선보름 달빛은 배에 가득하고
澄江繞檻流	맑은 강물은 난간을 맴 돌아 흐르네.

38) 李端相, 『靜觀齋先生集』, 한국문집총간 130, 한국고전번역원, p.37, <七月既望 同權按使 堦 登拱北樓> 其一.

39) 李端相, 『靜觀齋先生集』, 한국문집총간 130, 한국고전번역원, p.37, <七月既望 同權按使 堦 登拱北樓> 其二, 他鄉此會眞如夢, 歸向風塵託勝遊.

見聞渾爽豁	눈과 귀가 모두 상쾌하고
思想轉清幽	생각과 마음은 더욱 그윽해지네.
入夜猶忘返	밤이 되었건만 여전히 돌아갈 생각을 잊고
明朝擬更遊 <sup>40)</sup>	내일 아침에 다시 놀 것만을 모의하네.

시의 전반부 작자가 멀리 경상도 상주에서 공주까지 찾아온 이덕규<sup>41)</sup>와 그의 조카를 위해 달밤에 공북루에 주연을 베풀기 위해 공북루에 오르는 모습이다. 때는 7월 14일 밤이라 선보름달이 높이 떠올라 금강이 환하게 비추자 공북루 아래에는 맑은 강물이 은빛 물결을 일렁이며 도도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시의 후반부는 작자가 자신을 찾아 준 이덕규와 술을 마시는 장면이다. 선보름달이 비추는 달밤 공북루의 승경에 두 눈이 행복하고 친구와의 해후에 주고받는 정답에 귀가 즐겁다. 그리하여 관아로 돌아가 공무를 볼 생각을 잊고 내일 다시 놀 것만을 모의하고 있다.

셋째, 旅路의 懷抱를 드러낸 시이다.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느끼는 소감과 새롭게 접하는 경관 앞에 서서 形勝을 感歎과 異色的인 경물에 대한 驚歎, 역사적 廢墟地에 이르면 世道の 興廢와 人物盛衰의 허무와 感慨를 드러내고, 民瘼의 현장을 목도하면 현실을 개탄하기도 하고, 旅路가 고단하게 느껴질 때, 또는 行路難에 봉착해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사적인 유람, 공적인 순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한 편의 시속에 복합적인 심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sup>42)</sup>

본 절에서는 공북루에서 지은 시 가운데, 여로의 회포를 드러낸 시 36수 가운데 몇 수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李春元(1571~1634)이 1617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공북루에 올라 지은 <題拱北樓> 시이다.

40) 姜栢年, 『雪峯遺稿』, 한국문집총간 103, 한국고전번역원, p.95, <月夜與午谷李兄及李姪 登拱北樓>.

41) 李德圭(1598~?)는 자가 汝澗이고 호는 午谷으로 경상도 상주사람이다.

42) 이동재, 『梅溪 曹偉의 시문학연구』, 보고사, 2004, p.168.

拱北樓高返照明	공북루는 높아 저녁노을 빛이 밝고
登臨下矚錦江清	올라와 내려다보니 금강물이 맑구나.
落霞孤鶩滕王閣	저녁노을에 따오기 우는 등왕각 같고
斷石長流白帝城	남떠러지와 긴 강이 있는 백제성같구나.
小點大癡今日事	세상일에 잘난 채했으나 실상은 크게 어리석었고
先憂後樂古人情	옛 사람이 어려운 일은 먼저하고 즐기기를 뒤로 해
	라 했지
傷心海內方多故	나라 안에 사고가 많이 생겨 마음이 아프고
一夕秋風白髮生 <sup>43)</sup>	하루 저녁 가을바람에 백발만 돌아나네.

시의 전반부는 작자가 목도한 저녁나절 공북루의 풍경이다. 공북루의 서쪽은 산릉이 높이 솟아 있어서 저녁나절이 되면 공북루 쪽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러나 공북루는 높이가 높아서 아래쪽엔 산 그림자가 드리우지만 공북루는 햇볕을 받아 밝게 빛난다. 또한 공북루 아래쪽으로 금강물이 흘러서 중국의 강서성 남창에 있는 등왕각과 같은 승경이고 백제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다.

시의 후반부는 작자가 승경인 공북루에 올라와서 풀어 놓은 당대 국정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작자의 회포이다. 작자는 1613년(광해군 5) 대북세력에 의해 廢母論이 일어나자 이에 극력 반대론을 펴다가 파직을 당했다. 이후 작자는 1617년 권신들이 인목대비의 존호를 폐하고 대비에 대한 모든 의식을 없애려고 하자 이에 극력 반대하다가 충청도관찰사에서 파직을 당했다. 그래서 작자는 날로 어려워져가는 정치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한 위정자의 한 사람으로서 悔恨에 빠져 “나라 안에 사고가 많이 생겨 마음이 아프고, 하루 저녁 가을바람에 백발만 돌아나네.”라고 자책한 것이다. 즉 작자가 자신이 잘난 줄 알았으나 그 실상은 매우 어리석어서 자신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여 겪는 정치적 부침에 대한 회한인 것이다. ‘小點大癡’는 송나라 황정견의 <寺齋睡起>의 ‘小點大癡對龍蟠, 有餘不足夔隣虵’을 용사한 것이며, 先憂後樂은 『禮記』의 “先憂事者 後樂事, 先樂事者

43) 李春元, 『九畹先生集』, 한국문집총간 79, 한국고전번역원, p.157, <題拱北樓>.

後憂事”를 인용한 것이다.

이처럼 외직에 있으면서 느끼는 여로의 회포를 드러낸 시는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吳翹(1592~1634)이 1626년 청주목사로 부임하여 충청도의 치소인 공주에 들렀을 때, 공북루에 올라 李慶全의 시인 <拱北樓>시를 차운하여 지은 <拱北樓 次巡相李九畹韻> 시이다.

綠波如練晚沙明  
獨上高樓迥得清  
終古落花悲舊國  
祇今雙樹倚荒城  
百年時序長爲客  
萬里乾坤不盡情  
遙拱北辰戎馬際  
自憐書劍負殘生<sup>44)</sup>

비단결 같은 푸른 물결에 저녁 모래톱은 맑고  
홀로 높은 누각에 오르니 아득히 하늘은 맑네.  
예로부터 낙화는 옛 나라를 비감에 젖게 하고  
지금은 쌍수만 황량한 성에 남아있네.  
백년인생 돌아가는 철따라 길이 나그네 되어  
만 리 건곤의 나그네의 마음을 다할 수가 없구나.  
아득히 궁궐에서 군마를 떠받들 때  
슬프구나! 문무를 익히느라 여생을 저버림을

시의 전반부는 저녁나절 공북루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곳에서 느끼는 감회이다. 작자는 이미 1624년 李适의 난 때 인조를 호종하여 공주에 왔었고, 이후 다시 청주 목사로서 감영이 있는 공주에 공무로 다시 들러 공산성의 공북루에 오른 것이다. 작자는 인조를 호종하여 공주에 와서 오른 공북루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한 때 백제의 왕도였으며 인조가 머물던 공간이었던 공산성의 분위기는 쓸쓸함으로 다가온다.

시의 후반부는 자신의 삶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이의 삶을 산 것에 대한 회한이다. 작가는 해마다 외직으로 만 나가는 자신의 벼슬 복에 대한 한탄과 벼슬을 버리지 못한 후회이다. 기실 작자는 약관의 나이인 1612년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해서 승문원의 權知正字가 되어 명나라에 보내는 陳奏文을 초안하는 등 문명을 떨쳤으나 크게 拔身하지 못하고 외직

44) 吳翹, 『天城集』, 한국문집총간 95, 한국고전번역원, p.18, <拱北樓 次巡相李九畹韻>.

으로만 주로 떠돌았다. 그는 1620년 괴산군수를 거쳐 가을에 순검사종사관으로 삼남을 순찰하였으며, 1621년 韓浚謙의 종사관으로 관서지방의 군무를 순찰하였고, 1623년 인조반정 때 광해군의 처남인 柳希奮 문하의 8학사 중의 한 사람으로 지목을 받아 벼슬길이 순탄치 않았다가 沈器遠의 주선으로 正言이 되었다가 1624년 李适의 난 때 인조를 공주로 호종하였으며, 1625년 사은 겸 주청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626년 청주목사로 외직에 나와 공무로 공주에 와서 공북루에 오른 것이다. 그리하여 작자는 “아득히 궁궐에서 군마를 떠 받들 때, 슬프구나! 문무를 익히느라 여생을 저버림을”이라고 하여, 젊은 시절부터 벼슬에 나아가고 중앙의 관직에 머물기 위해 온갖 고생을 했지만 평생 외직을 떠돌며 여생을 저버린 것에 대한 후회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나그네의 회포가 드러난 시는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申混(1624~1656)이 1647년 그의 형인 申濡가 公州牧使로 근무할 때, 공주를 방문하여 형과 함께 공북루에 올라 지은 <奉和伯氏拱北樓> 시의 두 번째 시이다.

羈旅偏多病	나그네 생활에 자주 병이 걸리고
窮途已覺秋	곤궁한 처지에 이미 가을임을 깨닫네.
難橫賦詩槩	긴 창을 빗기 놓고 시를 짓기도 어려워
獨倚望京樓	홀로 망경루에 올라 기대어 보네.
當泣悲歌激	울고 싶을 땐 슬픈 노래가 격해지고
關心逝水流	마음은 흘러가는 물 따라 흐르네.
濁醪豪氣盡	막걸리에 호기도 다하고
聊爲試深愁 <sup>45)</sup>	애오라지 수십만 깊어지네.

시의 전반부는 작자가 공북루에 올라와서 풀어 놓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녀두리이다. 작자인 신혼은 1646년 그의 나이 23세에 별시에 병과로 합격하였으나 부친상을 당하여 출사하지 못하다가 1647년 5월에 임시직인

45) 申混 『初菴集』, 한국문집총간(속) 37, 한국고전번역원, p.17, <奉和伯氏拱北樓> 其二.

孝陵 典祀官을 맡았으나 50일 간의 긴 휴가를 얻어 형의 임지인 공주를 방문하였다. 그가 고향 순창을 거쳐 공주에 왔을 때에는 이미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어 입고 온 옷이 여름옷이라 한기마저 느낀다. 그래서 작자는 하루 빨리 서울에서 벼슬을 내려 줄 것을 고대하며 날마다 공복루에 오른다.

시의 후반부는 막걸리에 취해 혼자 술주정하는 모습이다. 작자의 처지는 과거에 급제했지만 벼슬을 제수받지 못해 형의 임지인 공주에 와서 형에게 빌붙어 사는 신세이다. 그래서 작자는 자신의 신세를 흐르는 금강물에 붙여 한탄하고 있다. 작자는 <奉和伯氏拱北樓> 시의 첫 수에서 “장년에 나그네 신세가 되었으니, 어느 날인들 누대에 오르지 않겠는가?”<sup>46)</sup>라고 하여 서울에서 하루빨리 관직의 제수라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 날마다 공복루를 올라왔으며, 공복루를 ‘망경대’로 표현하여 歸京의 기대를 극대화하고 있다.

넷째, 역사 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를 살펴본다. 시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작가의 의식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과거사의 추체험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비추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과거사를 평가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sup>47)</sup> 역사의 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는 주로 18세기에 들어와서 지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역사 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를 지은 문인은 당시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 계열의 문인들이었다. 나아가 역사회고 정서를 드러낸 시는 공산성이 백제의 왕도의 遺墟地임에도 불구하고 백제사에 대한 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가 거의 없고,<sup>48)</sup> 모두 이괄의 난을 소재로 하고 있다.

46) 申混 『初菴集』, 한국문집총간(속) 37, 한국고전번역원, p.17, <奉和伯氏拱北樓> 其一, 長年爲客處, 何日不登樓.

47) 이동재, 「歷史懷古와 勝景의 공간 落花巖」, 『동방한문학』 71집, 동방한문화회, 2016, p.342.

48) 공복루 제영시 가운데 역사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 가운데, 柳下 “洪世泰가 지은 <공복루>, 백제의 유혼은 황량한 들에 남아있고, 외로운 배는 저녁노을을 따라가네(홍세태, 『柳下集』, 한국문집총간 167, 한국고전번역원, p.419, <拱北樓>, 百濟餘荒野, 孤舟送夕陽.”라는 내용 외에는 표현이 없다.

다음의 시는 權斗經(1654~1725)이 1721년 高山察訪으로 부임하던 길에 공주를 지나며, 유근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拱北樓次柳西垞韻> 시이다.

雄開傑構壓津頭	드높이 세운 누각 나무터를 압도하고
天設城池壯此州	천혜의 성지는 이 고을을 장엄하게 하였네.
玉輦先朝曾駐蹕	왕을 태운 수레가 일찍이 고려 때 머물렀고
金戈暇日更登樓	전쟁의 여가에 다시 누각에 오르네.
威靈震電三邊廓	위령들이 번개처럼 삼변을 확장하고
勳業江河萬古流	공업은 강하처럼 만고에 흘렀네.
大筆瑜揚臣豈敢	신이 어찌 감히 크게 칭찬할 수 있으랴
且憑王事辦奇遊 <sup>49)</sup>	또한 왕사를 빙자하여 특이한 유람을 마련했네.

이 시의 작가인 權斗經은 퇴계학파인 李玄逸의 문인이다. 일반적으로 누정 제영시의 次韻詩는 원시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나 이 시는 원시가 공북루의 위용과 여기에서의 유희의 즐거움을 드러낸 것에 비해 역사회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작자는 유근의 시를 차운하면서도 제목에 小註를 붙여 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주에 의하면 “인조 2년 역적인 이괄이 하늘을 쏘는 무도함을 범하여 임금의 공주에 파천하였다. 여가에 누대에 올랐으며 현곡하라는 노포가 이르렀다.”<sup>50)</sup>라고 달아 놓았다.

시의 수련은 작자가 공북루에서 바라다 본 공산성과 공북루의 모습과 이에 대한 인식이다. 공산성은 천혜의 요해지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불가능한 곳이고, 공북루는 금강나루에 드높이 솟아있어서 나루 건너편을 경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의 함련은 공주 공산성으로 몽진한 역대 두 임금에 대한 회고이다. 먼저 고려 顯宗의 공주 몽진에 대한 회고이다. 고려 현종은 1011년 거란이 康兆가 穆宗을 폐하고 현종을 옹립하는 정변을 일으킨 것을 트집 잡아 2차 침입을 하여 개성을 점령하자 공주로 蒙塵하여 공산

49) 權斗經 『蒼雪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169, 한국고전번역원, p.140, <拱北樓次柳西垞韻>.

50) 權斗經 『蒼雪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169, 한국고전번역원, p.140, <拱北樓次柳西垞韻>, 仁祖二年逆适射天 上移蹕公州. 暇日御樓 而露布至以誠獻.

성에 머물다가 다시 나주로 갔다가 거란과 화해를 맺고 개성으로 환도하였다. 對句는 仁祖의 공산성 駐蹕에 대한 설명이다. 인조는 1624년 3월 26일 이괄의 군대가 개성을 함락하자 서울을 버리고 공주로 몽진하여 공산성에 駐蹕하며 공복루에 올라 초조하게 戰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시의 정련은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들에 대한 褒揚이다. 4월 1일 이괄의 부하 장수인 李守白과 奇益獻 등이 이괄과 한명련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공주에 가지고 와서 獻馘禮를 거행하였다. 이에 인조는 헌곡례를 주제하고 반란 진압에 공헌한 인물에 대한 포상을 하고 4월 5일(음력 2월 18일)에 한양으로 돌아갔다. 시의 미련은 작자의 감회이다. 작자는 인조의 영도력과 이에 따르는 李元翼과 張晩 등 훌륭한 문무백관이 있었기에 이괄의 난을 바로 평정하여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괄의 난을 회고하는 정서가 드러난 시는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石北 申光洙(1712~1775)가 1748년 湖西 覆試를 보기 위해 공주에 와서 공복루에 올라서 시판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拱北樓 次板上韻> 2수 가운데 두 번째 시이다.

西征烽火潏生哀  
 恭想先王警蹕來  
 雙樹行宮深自鎖  
 千家山郭抱長回  
 祇今南國關防險  
 誰是中原將相才  
 瀟灑江樓晚來客  
 百年懷抱暫時盃<sup>51)</sup>

서쪽에서 전해 온 봉화에 극심한 슬픔이 생기고  
 삼가 선왕의 수레가 주필한 일이 상상이 되네.  
 쌍수성의 행궁은 깊숙이 저절로 잠겨 있고  
 수천의 민가는 산성이 길게 돌아 감싸고 있네.  
 지금도 남쪽 고을의 관방은 험준한데  
 누가 중원 장상의 재주를 알아보겠는가?  
 쓸쓸한 강루를 저녁 늦게 찾아 온 나그네  
 인생 백년의 회포에 잠시 술잔을 드네.

이 시의 작자인 신광수는 조선 후기의 남인계열의 문인이다. 시의 수련은 이괄의 난의 발발과 인조의 공주 몽진에 대한 회고이다. 李适(1587~

51) 申光洙 『石北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31, 한국고전번역원, p.205, <拱北樓. 次板上韻>.

1624)은 1623년에 일어난 인조반정에서 仁祖(1623~1649)를 왕으로 즉위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으나 金瑬, 李貴 등 西人 공신들의 견제로 논공행상에서 소외를 받아 靖社功臣 2등에 봉해지는데 그쳤고, 반정 이후 두 달여 만에 後금이 침입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平安兵使 겸 副元帥로 임명되어 關西 지방으로 파견되었다. 그런데 서인 공신들은 이괄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의금부도사를 보내어 잡아서 압송하려고 하자, 의금부도사를 죽이고 평안도 寧邊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들이 개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진격해오자 인조는 서울을 버리고 공주로 몽진을 한 것이다.

시의 함련은 작자가 둘러 본 당대의 공산성의 모습이다. 작자가 공산성에 왔을 때에는 산성 안에는 여전히 행궁이 남아있었고 민가들이 즐비하였다. 시의 경련은 공산성에 대한 작자의 인식이다. 공산성은 천연의 요새이므로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함락시킬 수 없는 금성탕지라는 것이다. 시의 미련은 공북루에서 회고하는 작자 자신의 모습이다. 작자는 이괄의 난으로 몽진한 인조의 일을 매개로 불공평한 인간사와 이에 기인한 정치적 소용돌이, 변란 등에 대한 회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괄의 난에 대한 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는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조선후기 근기 남인계열의 실학자인 丁若鏞(1762~1836)이 1795년 7월 주문모 사건에 연좌되어 충청도 금정찰방으로 좌천되었을 때, 부여를 거쳐 공주를 유람하며 공북루에 올라 지은 <登公州拱北樓> 시이다.

李适凶鋒逼上京  
蒼黃警蹕駐孤城  
輿圖北燧熊津關  
叛氣西來鶴嶺平  
不是君王輕社稷  
當時賊豎有威名  
至今帳殿勞師地  
雙樹蕭森動客情<sup>52)</sup>

이괄의 흉악한 칼끝이 서울을 꺾박하자  
당황하여 놀란 임금의 고성에 머물렀네.  
나라 강토 곱나루 이북까지 좁혀들고  
반역의 기운 평안도 학령을 통해 넘어왔지  
임금께서 사직을 가볍게 본 건 아니었고  
그 당시 역적놈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지  
오늘날에도 행궁은 군사들을 위로하는 곳  
양상한 쌍수는 나그네의 마음을 흔드네.

시의 전반부는 인조의 공산성 駐蹕에 대한 설명이다. 인조는 이괄이 1623년 3월 13일 평안도 영변에서 龜城府使인 韓明璉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여세를 몰아 평안도와 황해도 遂安, 黃州 등을 차례로 점령하고 예성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조는 명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고 한양을 떠나 공주로 피난하여 공주에 와서 5박 6일을 머물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시의 후반부는 이괄의 난에 대한 작자의 인식과 회고이다. 작자는 이괄의 난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인조가 환락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니고, 이괄의 사욕으로 인해 생긴 변란이었으며, 난이 초기에 진압된 것은 인조의 덕화의 결과라고 회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누정 제영시가 누정의 탈속적 승경, 심신의 수양, 휴식 등의 정서가 주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공주 공북루 제영시의 내용이 공북루의 승경을 칭찬하거나 유식의 즐거움, 여로의 고단함, 역사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가 중심인 것은 공북루의 공간적 위치에서 기인한다.

공북루가 위치한 공산성은 백제시대의 궁성이었고, 고려의 현종이 거란의 침략을 피해 蒙塵한 곳이었으며, 조선의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잠시 駐蹕한 장소이다. 또한 공북루는 공산성의 북쪽 關防을 담당하는 城樓이자 금강진의 津樓, 여기에 관청에 딸린 公廡로서 경치가 뛰어난 승경의 공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휴식과 조망, 회고, 전별 등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 V. 結 論

본고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의 문화적 위상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공산성에 있는 공북루 제영시의 현황과 작품세계를 살펴보아서, 공북루의 문화사적 가치를 찾고 문화관광에 활용

52)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고전번역원, p. 41. <登公州拱北樓>.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북루 제영시는 공북루를 매개로 한 당대의 인물들의 교유관계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각 정파의 유대관계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사적 자료가 되지만 현재까지는 누정의 현황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이곳에서 지어진 한시의 현황과 분석은 전무하였다.

주지하듯이, 공주의 公山城은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금성동·옥룡동에 걸쳐 있는 백제시대 석축 성곽으로 금강을 북쪽으로 끼고 있어서 경관이 매우 수려하고 보존상태가 우수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 유산이다.

현재 공산성에 남아있는 누정은 공북루 외에도 공산성의 남쪽 관문인 진남루, 서쪽 관문인 금서루, 동남쪽의 영동루, 영은사 북쪽 금강변의 만하루, 쌍수정, 광북루, 공산정 등의 누정이 있다.

拱北이라는 명칭을 가진 누각은 성곽의 북쪽에 있는 문루로 공주 공산성의 공북루 이외에도 청주성의 북문, 고창의 모양성 북문, 전주성의 북문 등이 있다. 현재 공북루는 공산성과 고창의 모양성에 남아있지만, 공산성 공북루가 공간적 위치가 금강 변 승경의 공간에 있고, 크기가 모양성의 공북루보다 크고 웅장하여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공산성 공북루는 1603년 충청도 관찰사 柳根이 공산성 안에 충청도의 감무를 조성하면서 성의 북쪽 금강변 석성 위에 세운 공산성의 누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산성의 북쪽의 관방을 담당하는 城樓이자 금강진의 津樓, 여기에 관청에 딸린 公廨로서 경치가 뛰어난 승경의 공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휴식과 조망, 회고, 전별 등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다.

공산성 공북루 제영시는 1603년 柳根이 공북루를 낙성하고 지은 시가 최초이며, 이후 20세기 초까지 꾸준히 지어져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원문정보서비스에 탑재된 한국문집총간 DB에 88題 94수가 색인될 정도로 많이 지어졌으므로, 본고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북루 제영시의 형식은 5언절구 2제 2수, 5언율시 12제 13수, 7언절구 20제 23수, 7언율시 52제 56수 등으로, 7언율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초의 공북루 제영시인 유근의 시가 7언율시였고, 이 시를 후대의 문인들이 많이 次韻하여 지었기 때문이다.

공북루 제영시 88제 94수의 내용은 공북루의 승경을 읊은 시가 24수, 여로의 회포를 드러낸 시가 36수, 遊食의 즐거움을 드러낸 시 26수, 역사 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가 8수 등이다. 특히 역사회고의 정서가 드러난 시는 남인계열의 문인에 의해 지어졌으며, 회고의 대상이 되는 역사는 백제사보다는 이괄의 난에 대한 회고이다.

일반적으로 누정 제영시의 내용은 누정의 탈속적 승경, 심신의 수양 등의 정서가 주된 내용이나, 공주 공북루 제영시의 내용이 공북루의 승경을 칭찬하거나 유식의 즐거움, 여로의 고단함, 역사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가 중심인 것은 공북루의 공간적 위치에서 기인한다. 즉 공북루가 백제의 궁성이자 고려 현종과 조선의 인조가 駐蹕했던 행궁지인 공산성의 城樓이고, 금강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승경의 공간이며, 충청도 감무의 公廨로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사절들의 휴식 및 접대 장소였고, 금강을 건너는 시인묵객들이 머물며 여로의 고단함을 토로할 수 있는 津樓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공북루 제영시를 통해 통시적으로 서인 등 각 정파의 유대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參考 文獻〉

- 姜栢年, 『雪峯遺稿』, 한국문집총간 103, 한국고전번역원.
- 權斗經, 『蒼雪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169, 한국고전번역원.
- 金尙容, 『仙源遺稿』, 한국문집총간 65, 한국고전번역원.
- 金弘郁, 『鶴洲先生全集』, 한국문집총간 102, 한국고전번역원.
- 柳根, 『西峒詩集』, 한국문집총간 57, 한국고전번역원.
- 柳夢寅, 『於于野談』, 한국고전번역원.
- 朴胤源, 『近齋集』 권21, 한국문집총간 250, 한국고전번역원.
- 朴準源, 『近齋集』, 한국문집총간 250, 한국고전번역원.
- 宋時烈, 『宋子大全』 卷140, 한국문집총간 113, 한국고전번역원.
- 申光洙, 『石北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31, 한국고전번역원.
- 申混, 『初菴集』, 한국문집총간(속) 37, 한국고전번역원.
- 吳翻, 『天坡集』, 한국문집총간 95, 한국고전번역원.
- 李慶全, 『石樓遺稿』, 한국문집총간 73, 한국고전번역원.
- 李端相, 『靜觀齋先生集』, 한국문집총간 130, 한국고전번역원.
- 李春元, 『九峴先生集』, 한국문집총간 79, 한국고전번역원.
- 李弘有, 『遜軒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속) 23, 한국고전번역원.
-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한국고전번역원.
- 夏時贊, 『悅菴文集』, 한국문집총간(속) 102, 한국고전번역원.
- 洪世泰, 『柳下集』, 한국문집총간 167, 한국고전번역원.
- 강정화, 「지리산권 하동지역의 樓亭攷」, 『남도문화연구』 제21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1.
- 국립공주박물관, 『공산성』, 국립공주박물관, 2013.
-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감영』, 국립공주박물관, 2016.
- 이동재, 「歷史懷古와 勝景의 공간 落花巖」, 『동방한문학』 제71집, 동방한문화회, 2016.
- 이동재, 『梅溪 曹偉의 시문학연구』, 보고서, 2004.
- 조용호, 「장흥의 樓亭과 樓亭詩의 사회, 문화적 맥락」, 『지방사와 지방문학』 제14집, 역사문화학회, 2011.
- 허경진, 『충남지역 누정문학 연구』, 태학사, 2000.

## Abstract

### *A Study on Jeyeongsi Poetry of Gongbukru Pavilion in Gongsanseong Fortress, Gongju*

Lee, Dong-Jae\*

This study as part of a basic study to examine the cultural status of Gongsanseong Fortres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Jeyeongsi poetry of Gongbukru pavilion in Gongsanseong Fortress and the world of the works, contributing to finding the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 of Gongbukru pavilion and utilizing it for cultural tourism.

Gongsanseong Fortress in Gongju is a space of beautiful scenery along the river Geumgang, and was the royal palace in the Baekje era, and there was Gammu for the provincial governor in the Joseon era, comprising various pavilions including Gongbukru pavilion. Gongbukru pavilion was a pavilion built north of Geumgang riverside in 1603 by the Cheongcheong-do provincial governor, Yu Geun in the Gongsanseong Fortress as he was preparing Gammu of Cheongcheong-do province, and played a spatial role of Yushik (遊息) and Jeonbyeol as well as functioning as Gwanbang (關防).

After Yu Geun completed and built Gongbukru pavilion in 1603, Jeyeongsi poetry of Gongbukru pavilion in Gongsanseong Fortress was written steadily until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there are 94 poems in 86 subjects in the DB on the original information service provided by th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In terms of the form of Jeyeongsi poetry of Gongbukru pavilion, there are 2 poems in 2 subjects in the classic Chinese quatrain with five-character lines, 13 poems in 12 subjects in the five-syllable regulated verse, 20 subjects 23 poems in the classic Chinese quatrain with seven-character lines, and 56 poems in 52 subjects in the seven-syllable regulated verse, showing that the seven-syllable regulated verse accounts for more than half. It is because Yu Geun's poems, the first Jeyeongsi poetry of Gongbukru pavilion, were the seven-syllable regulated verse, and the poets of oncoming generations wrote this poetry

---

\*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 leedj@kongju.ac.kr

a lot by rhyme-matching (次韻).

In the contents of Jyeongngsi poetry of Gongbukru pavilion in Gongsanseong Fortress, there are 24 poems which recited the beautiful scenery of Gongbukru pavilion, and 36 poems that revealed the inmost unburdened thoughts of journey, 26 poems revealing emotions of Yushik (遊息), and eight poems that reveal the emotions of historical retrospectives. It is because it was a space of beautiful scenery where Gongbukru pavilion was the ramparts of Gongsanseong Fortress, the royal palace and rural palace site of Baekje, a space with the view of the river Geumgang, a place of rest and entertainment for officials or envoys who perform public affairs, and the spaces of military camps where poets and experts in calligraphy and ink drawing could stay and expose the fatigue of the journey.

**【Key words】** Gongsanseong fortress, Gongbukru pavilion, Jyeongngsi poetry, Yu Geun, Gwanbang, Yushik (遊息; relax), Jeonbyeol (餞別: Party one's way to farewell for those who leave)

투고일 : 5월 07일, 심사완료일 : 6월 12일, 게재확정일 : 6월 16일

